

19대 국회 개원

■ 19대 국회에 바란다

제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18대 국회가 '갈등, 폭력, 식물, 둘러리 국회'라는 역대 최악의 오명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뒤 새롭게 시작되는데 점에서 기대가 더욱 큰 지도 모른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에서 예산과 인사에서 홀대받았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여론을 중앙 정부에 충분히 반영해줬으면 하는 게 지역민들의 바람이다. 광주·전남 광역단체장과 학계·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제19대 국회에 바라는 점들을 들어봤다.

“광주시민과 함께 희망을 이야기 하는 국회 되길”



강운태 광주시장

역사적 갈림길에서 중차대한 임무를 안고 제19대 국회가 출범하는 오늘,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19대 국회 출범을 축하한다. '초심(初心)', 오늘 간직한 마음, 유권자들과 맺은 약속, 소중하게 실현해야 할 의정활동의 좌표다.

특히 광주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광주 국회의원들이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시민들에게 보답하

고 사랑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란다. '민심(民心)', 2012년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해다. 역사의 고비마다 광주는 '길'을 제시해왔다. 지금 또다시 국민은 광주의 민심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때 19대 국회는 경제민주화, 복지의 확대, 통일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책은 물론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타파하고 선진국 진입의 핵심전략인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역사적 과제 앞에 서 있다.

끝으로 광주시민과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는 19대 국회를 기원한다.

“합리적 국회 되도록 양보·타협기술 발휘를”



박준연 전남지사

국회의 본래 기능은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하며 감독하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 국민에게 비춰지는 국회는 생산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서로 싸움만 하는 소모적 모습으로

국회의 권위가 실추돼 있다. 국민들이 정치인을 보는 눈도 냉소적이어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전반적으로 실추된 상태다.

따라서 국회 본연의 모습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국회가 국민들이 기대하고 국민들에게 중요한 현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실현된 지 반세기가 됐다. 국회가 극단적인 싸움을 지양하고 서로 토론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가는 양보와 타협의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할 때다.

19대 국회가 첫 발을 내딛는 만큼 성숙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범을 제시함으로써 국회가 민주주의의 교역의 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민주주의 회복·사회 양극화 해소 나서야”



조정관 전남대 교수

제19대 국회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빼앗긴 민주주의의 회복과 함께 정치권력을 찾아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지역민의 목소리를 꾸준히 들으면서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서

야 한다. 정쟁만 일삼는, 싸움질만 하는 국회가 아닌 민주주의의 회복에 앞장서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의원직을 던져서라도 민주주의의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사회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호남지역은 현 정권의 지역차별로 인해 양극화가 더욱 심하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호남지역 목소리를 중앙정치에서 회복해야 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 구체적 대안 제시하라”



김기홍 경실련 사무처장

제19대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풀어야 할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지역 정치권이 풀어야 할 핵심적 의제는 무늬만 지역

은행인 광주은행을 반드시 지역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지역경제 차원에서 볼 때 광주은행을 지역은행으로 만드는 만큼

중요한 게 없다. 두 번째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방행정체제는 그대로 두고 지방재정 건전화와 관련 지방이양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차별 없는 복지 대안 제시다. 지방재정이 줄면 복지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과 수도권 등 지방재정에 따른 복지대책이 차등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지방재정과 상관 없이 보편적 복지가 보장되는 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의정활동 이렇게 하겠다

광주일보는 19대 국회 개원을 나올 앞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19명 중 17명이 참여했다. 설문 내용은 '의정활동 이렇게 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이다. 설문은 국회활동과 입법, 지역현안 등 세 가지로 나눠 실시했다. 당내 문제로 내용을 겪고있는 통합진보당 김선동·오병운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 ▲범례
- ①국회활동
- ②입법
- ③지역현안 대응

CGI 센터·문화 연구원 설립

장병완 (민주통합·남구)



①18대 국회 때 여당의 날치기로 빈곤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 필수 민생 예산이 삭감됐다. 19대 국회에선 예산안 날치기 재발을 막겠다.

②현 정부 들어 악화한 국가재정 건전성 회복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등 재정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

③지난 3월 완공된 CGI 센터와 문화기술 연구원 설립을 통해 광주 남구를 첨단문화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는 곧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광주역, 송정역으로 일원화

김동철 (민주통합·광산 갑)



①치열한 민생정책 경쟁으로 국민에게 수권역량을 평가받는 정당과 국회로 거듭나도록 입장 서겠다.

②광산구가 광주와 호남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해선 군용비행장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 18대 국회에서 완료하지 못한 군용비행장 이전특별법 제정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

③광주역을 광주송정역으로 일원화하고 복합환승센터에 국비지원 및 민자를 유치해 광주송정역을 국도서관공의 물류·교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

여수엑스포 사후 활용 고민

김성곤 (민주통합·여수 갑)



①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국회의원 개인이 아닌, 각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연구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②여수세계박람회 시설 사후 활용 관련 법안과 날치기·몸싸움 방지 등 국회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③여수박람회 시설을 사후 어떻게 활용하고 이를 이끌어 나갈 주체를 만들거나 새로 구성하는 문제가 남해안 관광발전의 핵심이다.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백운산 연습림 되찾을 것

우윤근 (민주통합 광양·구례)



①'소통과 상생'을 위한 헌법연구' 모임을 구성, 여·야간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소통과 상생의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재량권 대통령제 권력 구조를 개편하겠다.

②'서울대 법원화법'에 의해 지리산과 백운산 연습림을 무상양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서울대 법원화법을 개정하겠다. 또 부가가치세법, 지역협력촉진법 등 민생 문제 중심의 법안 제·개정 예정하겠다.

③지역협력촉진법을 제정 인근 시·군 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광양항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당론·계파 지양 정치 떠났다

황주홍 (민주통합 장흥·강진·영암)



①당론의 노예가 되는 정치를 개선하겠다. 또 계파정치를 지양, 국민만을 받드는 국민파당을 만들겠다. 민주당을 포함한 기존 정당의 전면 쇄신을 위해 노력하겠다.

②입법·예산적으로 농민을 없애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싶다. 또한, 농어촌지역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농어촌 고교에 대한 특별지원법 입법을 하겠다.

③국회의원의 특권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지역 현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약속 지키는 국회 만들겠다

박주선 (동구·무소속)



①약속 지키는 국회 만들어야 한다. 약속을 지키는 의원이 되겠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의 공전을 반드시 막겠다.

②최고 복지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다. '완전고용의무' 법률 명시 등 일자리 창출 법안 마련에 주력하겠다.

③2014년 아시아문화전당 차질 없는 완공과 이와 연계된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조성, 예술의 거리 특화 관광지역 추진, 광주지역산업센터 활성화 등 동구가 문화중심도시의 핵심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

당파 이익떠나 서민 위할 터

강기정 (민주통합·북구 갑)



①19대 국회에선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당파의 이익 대신 서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야 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생산이 이뤄

지길 바란다. 또 대화와 합의에 의한 의회 민주주의가 완성되길 기대한다.

②제가 처음 만들었던 기초노령연금 확대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개발에 전력 다하겠다.

③지역 구성원과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겠다.

광산 산업인프라 육성

이용섭 (민주통합·광산 을)



①정치인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국회, 정당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국회, 밀어붙이기 보다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②일자리 창출·경제 민주화·보편적 복지·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③교육·문화·체육인프라 확충, 명품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또 하남·첨단·진곡산단 및 R&D 특구 등 산업 인프라를 적극 육성해 일자리를 확충하겠다.

지방재정 확충 입법 노력

주승용 (민주통합·여수 을)



①평생을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청렴과 도덕성으로 국민의 신임을 받은 김근태 의원의 치욕적 역할을 하겠다.

②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조차 해결 못할 정도로 지방재정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각 지자체는 재정이 바닥날까봐 우려하는 상황이다. 19대 국회에선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입법을 하겠다.

③지방 재정이 위기 상황인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

농어촌부흥세 신설하겠다

이낙연 (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



①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고, 농어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②한미 FTA 등 일단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본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농어촌부흥세를 신설하겠다. 국민의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입법활동에도 노력하겠다.

③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함은 물론 언제나 지역민과 함께 하고 성심성의껏 일하겠다.

광주~완도 고속도 조기 착공

김영록 (민주통합 해남·완도·진도)



①19대 국회에선 농어민과 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재벌 특혜와 한중 FTA 협상 저지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②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보장하고 농업직접지불제 확대하겠다. 또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고 품목별 소득지불제를 도입하겠다.

③광주~완도간 고속도로가 조기 착공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타당성 용역조사 중인 전남-제주 간 해저고속철도사업이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지역인재 '로제타 플랜' 수립

박혜자 (민주통합·서구 갑)



①12월 대선에서 국민의 열원인 정권교체를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서겠다.

②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육성지원법 제정과 함께 한국군 '로제타 플랜'을 수립하겠다.

주부수당과 취업촉진수당 등 지급 근거를 마련, 보편적 복지 확대에 노력하겠다.

③광천동과 양동 재개발, 농성동과 유덕동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상무소각장 이전 부지를 복합문화여가시설로 조성하겠다.

중기·소상공인 보호 앞장

임내현 (민주통합·북구 을)



①몸싸움과 날치기가 없고 당리당략보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길 바란다.

②중소상인과 소상공인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잠식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 활성화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출자총액 제한제부활 등 입법화 하는데 노력하겠다.

③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현안 예산을 확보함은 물론 경제계 인사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기업유치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

연말 대선 정권교체 총력

박지원 (민주통합·목포)



①국민은 여야에 150대 140의 황금분할 구도를 줬다.

집권 여당의 독단적 운영도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어려운 구조다.

정책 대결이 가능하다. 민생과 현안 문제를 착실히 쟁겨 정권교체 이루어지겠다.

②보편적 복지 등 민생현안 문제가 많은데, 민생문제 법안을 잘 챙기겠다.

③중앙 정치는 물론 금규월해하며 지역구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겠다

배기운 (민주통합 나주·화순)



①책임지지 못할 공약과 정치적 발언을 남발해 국민을 혼란케 하는 국회가 아니라 약속을 실천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②지역균형발전과 낙후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제도 정비 입법과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등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활동에 중점을 두겠다.

③혁신 도시의 차질없는 완성과 구도심의 유기적인 연계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영산강 고대문화 자원과 천년묵 문화의 자원 등을 관광자원화하는데 노력하겠다.

고흥우주산업 국책사업 노력

김승남 (민주통합 고흥·보성)



①무분별한 의원발의 건수가 늘고 있다. 19대 국회에선 불필요한 의원 간 과다경쟁을 지양하고 민생현상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②친환경농업육성법 대목 개정을 통해 새로운 대안농업으로 전환, 농촌이 고부가가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③오는 10월 고흥 나로호 3차 발사가 예정돼 있는데, 고흥우주항공클러스터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보성녹차산업도 지역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농어가 부채 문제 적극 해결

이윤석 (민주통합 무안·신안)



①현 정부 들어 부정과 비리,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파탄해졌는데, 연말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②불합리한 공식선거법 개정과 농어가부채해소특별법을 제정,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겠다.

③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등 생활민원형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

/정리=최권일·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